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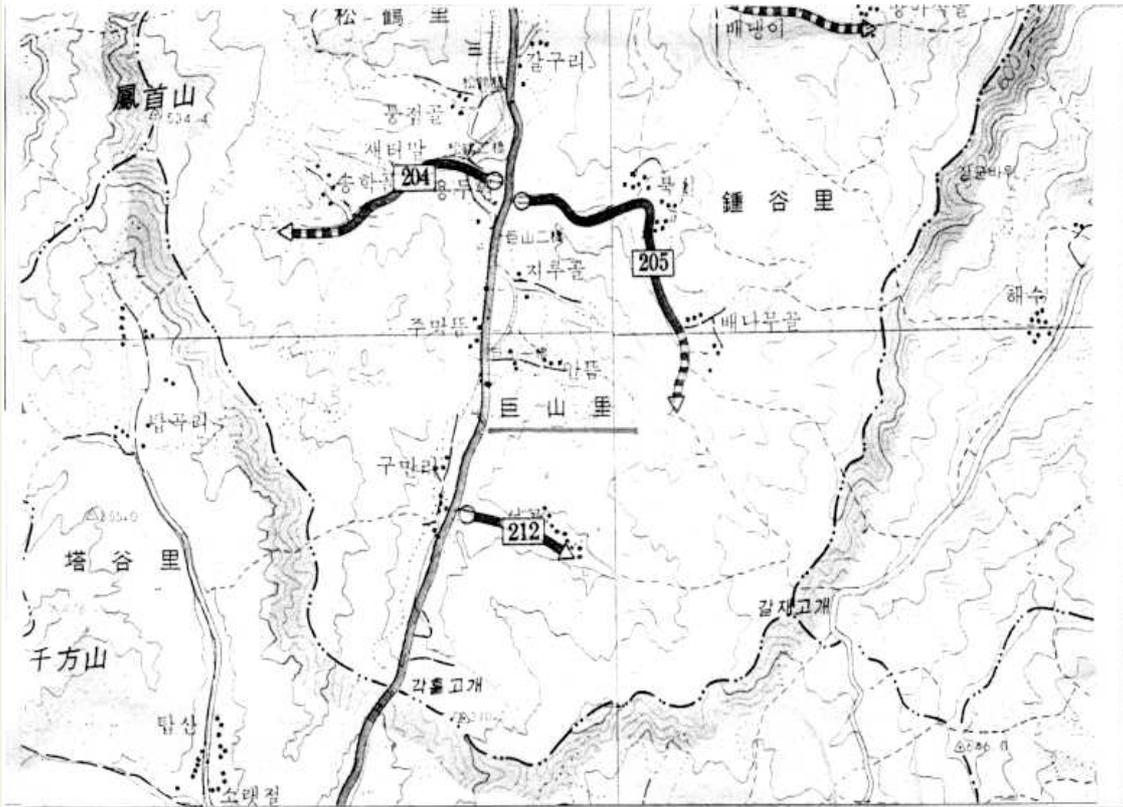
거산리·巨山里

거산리·巨山里

< 구연자 : 아산시 송악면 거산 1리 이호남씨(79세)>

거산리는 송악면의 한 마을로 거산골 또는 거상골이라는 마을과 성골 마을을 나뉘어 졌으며, 거산리의 총 인구는 234명이며 가구수로는 65가구이다.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며 특산물로는 표고버섯이 많이 나는 마을이다. 본래 온양군 남상면의 지역으로서 산이 매우 크므로 거산골, 거산 또는 변하여 거상골이라 하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용두원, 성동, 구만리를 병합하여 거산리라 하여 아산군 송악면에 편입되었다.

< 거산리 위치도 >



☒ 거상골 마을, 성골마을(거산리)

거산 1리는 거상골, 구마니, 안뜸, 용두원, 주막뜸, 지룻골로 이루어졌으며, 거상골이라 불리게 된 유래는 산이 매우 크다 하여 지어진 지명인데 거산골, 거산 또는 변하여 거상골이라 불리워지게 되었으며, 구마니 마을은 옛날에 구만 명이 피난했던 마을이라 하여 유래되었고, 안뜸마을은 거상골 안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유래 되었으며, 용두원은 조선시대에 관원들을 머무리게 하던 곳이므로 유래 되었고 또 다른 설은 뒷산 봉우리가 용머리처럼 생겼다하여 불리워졌으며, 주막뜸 마을은 용두원 위쪽에 있던 마을로 주막이 있었다 하여 주막뜸이라 불리워지게 되었으며, 지룻골은 권씨가 지루라는 정자를 세웠다 하여 유래 되었다.

거산 2리는 성골, 어둔골, 가래나무골로 이루어 졌으며, 성골 마을은 송악면의 가장 끝쪽에 위치하여 유구면과 경계가 된다. 성골이라 불리게 된 유래는 두 가지가 있는데, 마을에 있는 산인 시루봉에 성이 있었다는 전설 때문에 불리었다는 유래와 산너머에 성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을 가려면, 이 마을을 지나쳐야 해서 성으로 가는 골짜기라하여 성골이라 하였다는 유래가 있으며, 어둔골은 성골 안에 있는 마을로 어두운 음지에 위치한 마을이라 하여 어둔골이라 부리워졌으며, 가래나무골은 가래나무가 많이 있어 가래나무골이라 한다.

< 조사당시 거산리 마을 관련 사진 >



1) 위 치

거상골 마을은 위도 36-40-30, 경도 126-59-40인 지역으로 유구를 가기전 용두원 마을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왼쪽으로 드문드문 있는 마을이다. 면소재지에서 남쪽으로 39번 국도를 따라 내려가다 보면 도로 끝쯤에 마을이 하나 있는데 그 마을이 거상골이다.

성골 마을은 위도 36-39-40, 경도 126-59-50인 지역에 위치해 있다. 성골은 송악면과 공주시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구로 넘어가는 고개 아래 길 옆으로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거상골에서 1.3km 떨어져서 212번 도로의 끝 마을이다.

2) 현 황

거상골 마을의 인구는 남자 74명, 여자 76명으로 총 150명이며, 가구수로는 38가구이며, 농업에 95% 종사하며 공무원과 교사도 1호씩 있다.

성골마을은 남자 50명, 여자 34명으로 84명으로, 총 27호가 살고 있다. 그 중 96%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회사에 다니고 있다.

- 인구 현황

구 분 마 을 명	계	남	여
거상골마을	150명	74명	76명
성골마을	84명	50명	34명

- 생 업

구분 마을명	계	농업	회사	교사
거상골마을	100%	95%	2.5%	2.5%
성골마을	100%	94%	4%	2%

거상골 마을의 농경지 현황을 보면 논 14.5ha, 밭 14.6ha 이루어져 있다. 농기계는 경운기가 제일 많으며, 다른 농기계들은 2~6대로 비슷하게 분포되어 있다. 마을의 문화시설로는 마을회관 1개소가 있을 뿐이다.

성골 마을의 농경지 현황을 보면 논 10ha, 밭 14.6ha 이루어져 있다. 농기계의 현황을 보면 경운기와 예취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그밖에 여러 농기계들도 조금씩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마을에 있는 문화시설로는 마을회관 1개소가 있다.

- 농경지 현황

구분 마을명	계	논	밭
거상골마을	29.1ha	14.5ha	14.6ha
성골마을	24.6ha	10ha	14.6ha

- 문화시설

구분 마을명	계	마을회관	노인회관
거상골마을	1개소	1개소	-
성골마을	1개소	1개소	-

거상골 마을의 성씨별 분포를 보면 이씨가 가장 많이 살고 있으며, 권씨와 김씨를 비롯 다양한 성씨가 살고 있으며, 연령층은 대부분의 시골마을처럼 50대와 60대가 두드러지게 분포하고 있다.

성골마을의 성씨별 분포를 보면 거의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광씨 15%, 이씨 19% 호, 김씨 11%, 기타 성씨로 55%로 나타났다. 연령층은 50대와 60대가 가장 많으며, 70대 이상의 고령자들도 많이 분포되어 있고, 두마을 모두 고령자가 많은 장수마을이다.

- 성씨별 분포 현황

구분 마을명	계	이씨	권씨	김씨	광씨	기타
거상골마을	38호	9호	5호	7호	-	17호
성골마을	27호	5호	-	3호	4호	15호

- 최고령자

거상골 마을의 최고령자는 이 호남 할아버지로 올해 79세이시며, 건강하신편이시며, 성골 마을에서 최고령자는 천 봉의 할아버지로 올해 90세의 고령이지만, 건강하신편이다.

3) 자연경관

거상골 입구는 용두원이란 작은 부락으로 되어 있으며, 뒤에 산이 펼쳐져 있다. 마을 사이로는 유구로 가는 도로가 지나가고 산기슭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성골 마을은 성골과 주막거리로 나뉘는데, 성골은 도로 좌측편으로 깊숙히 자리하고 있고, 주막거리는 도로 우측으로 모여 살고 있는 마을이다. 주막거리는 유구로 넘어가는 고개 밑

우측으로 자리하고 있어 옛날 이곳에 주막이 있었는데 매우 장사가 잘 되었다고 한다.

4) 마을 변천과정

거상골은 본래 온양군 남상면의 지역으로서 산이 매우 크므로 거상골, 거산 또는 변하여 거상골이라 하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용두원, 성동, 구만리를 병합하여 거산리라 하여 아산군 송악면에 편입되었다. 성골은 일제시대 이후에 분리 되었다고 한다.

5) 입 향

거상골 마을에 제일 먼저 터를 잡고 산 성씨는 권씨와 현씨인데, 권씨는 지금 몇 가구 남아 있지만 현씨는 한 가구도 남아 있지 않다. 마을에 처음 터를 잡고 산 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었고, 권씨가 현재 4대째 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서기 1780년경 약 120년 이전으로 추정하고 있다.

성골 마을의 원거인은 현재 9대째 살고 있는 한양 조씨이고, 마을의 형성시기는 서기 1730년경 약 270년으로 추정되며, 그 후로 김씨, 박씨, 이씨 성들이 살게 되었다

6) 지 명

十 거상골 지명

- 거상골 : 산이 매우 크다 하여 붙인 이름으로 거산골이라 했다가 변하여 거상골이라 함.
- 구마니 : 용두원 남서쪽 골짜기에 있는 작은 마을로 옛날에 구만명이 피난했던 마을이라 하여 구마니라 유래 됨.
- 성골 : 주막뚝 남쪽 큰 산 밑에 있는 마을.
- 안뜸 : 거상골 안쪽에 있는 마을.
- 용두원 : 거산리 큰 길가에 있는 마을. 이조때 용두원이 있었음. 선조 26년(1593) 윤11월 29일 왕세자가 임진왜란의 상황을 살피기 하여 온양에서 공주로 가는 길에 이곳에서 점심을 먹었다고 함.
- 주막뚝 : 용두원 위쪽에 있는 마을. 주막이 있음.
- 지룻골 : 용두원 옆에 있는 마을. 권씨가 지루라는 정자를 세웠다 함.
- 진개골 : 지룻골 앞에 있는 긴 골짜기.
- 거산교 : 거산리 앞에 있는 다리. 1957년에 놓음.
- 신거산교 : 거산교 위쪽에 있는 다리. 1958년 12월에 놓음.
- 백자요지 : 이조후기의 것으로 추정. 섬골 마을과 안뜸 마을에 각각 1개씩 발견됨.
- 거산야철지 : 안뜸마을에 있음. 산화된 쇠붙이가 발견됨.

十 성골마을의 지명

- 어둔골 : 성골 안에 있는 마을로 어두운 음지에 위치한 마을.
- 고무래봉 : 주막뚝 앞에 있는 봉우리. 모양이 고무래와 같다 함.
- 시루봉 : 주막뚝 뒤에 있는 봉우리. 시루와 같다 함.
- 각홀 고개 : 구마니 남쪽에 있는 고개. 온양에서 공주군 유구면 각홀로 넘어가는 큰길이 됨. 각홀와우라 하는 명당자리가 있음.
- 말뚝봉 : 소를 매어두는 말뚝처럼 생긴.
- 구수바위 : 소가 먹는 밥그릇처럼 생긴.
- 가래나무골 : 주막거리 건너에 있는 마을로 가래나무가 많이 있었음.

7) 전 설

十 용두원 전설(거상골 전설)

마을에서 특별하게 전해내려 오는 전설은 없었지만, 용두원이라 불리게 된 유래가 있는데, 용두원이라는 마을 옆에 바가지를 덮어 놓은 듯한 둥그렇고 작은 산이 있는데 그산이 용의 머리와 같다하여 용두원이라 하였다고 하며, 전해오는 이야기로는 선조 26년에 왕세자가 임진왜란의 상황을 살피기 위하여 온양에서 공주로 가는길에 이곳에서 점심을 먹었다

는 전설이 전해오고 있다.

十 각흘고개(성골마을)

마을의 지형이 와우형으로 소가 누워있는 형상인데 현재 공주시와 아산시의 경계가 되는 이 각흘고개가 소가 누운 형상중 뿔이 있는 부분이라하여 각흘이라 하였는데 예전 이곳에 도로가 날 때 피가 나왔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또한 주변에는 소와 관련된 지명들이 많은데 이곳에 각흘와우라 하는 명당이 있어 전국에서 지관들이 명당을 찾고자 모여들곤 하였다고 한다.

8) 전통놀이 및 대표적 집단 행사

거상골과 성골 마을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전통놀이나 제례행사는 없으며, 단지마을 사람들끼리 운영하고 있는 대동계만 운영되고 있는데 애경사시 서로 돕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9) 특별하게 소개할만한 인물

10) 종교단체

거상골 마을에는 작은 교회가 있는데 거산교회로 성도수는 13명 정도 밖에 안되는 교회이며, 성골마을에는 종교단체가 없다.

11) 공장현황

거상골과 성골 마을에는 공장이 없다.

12) 마을의 특성

거상골의 특성이라면 마을이 길게 산기슭을 따라 위치하고 있으며, 마을 사람들의 심성은 다른 마을과 마찬가지로 정이 많고, 서로 돕는 단합이 잘되는 마을이다. 성골 마을은 산속 깊숙하게 위치하고 있는데, 계곡이라든지 자연환경이 전혀 아직도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자연을 간직하고 있으며, 가옥구조도 시골 재래형태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가옥들이 많고, 마을사람들의 정 또한 넉넉하다.